

일주문



제주청교련 발대식
청소년교화연합회장 현성 스님은 4월 16일 제주 남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청소년 회원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주청교련' 발대식을 개최했다.



승가교육개선을 위한 첫 공청회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장 종범 스님은 5월 4일 오후 1시 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명담 스님이 4월 21일자로 조계종 포교련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1987년 운문사 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5년 춘계 성지순례
전북불교대학 강건기 학생은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4월 17일 강진 박련사와 무위사, 화순 운주사 등지로 2005학년도 춘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불교학도서관학 정기총회
한국불교학도서관협의회 정진환(동국대 교수) 회장은 4월 20일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상범 교수 '4·19혁명' 수상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지냈던 한상범 前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사진)이 4·19 혁명 45돌을 맞아 올해의 '4월 혁명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4월 혁명상'을 시상하는 사회혁명회는 '한 前 위원장은 3선 개헌 반대, 신군부 반대 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규명 운동 등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가정이 밝아야 세상도 밝아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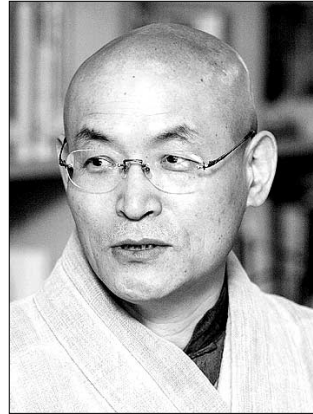
'구국구세 법회' 여는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

"가정에 대한 불교적 이해는 연기와 중도를 키워드로 합니다. 인간 삶의 근본인 '관계'와 개인의 '역할'이 가정이라는 범주에서 바르게 정의되지 않으면 가정 파탄과 사회 혼란으로 직결됩니다.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으로 가정의 가치를 일깨우셨는가를 공동 화두로 삼고 10주 동안 대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번 법회를 기획했다"는 스님은 "스님, 신부와 가정관련 전문학자들이 불교적 관점을 통해 가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법회의 기본 내용"이라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에서 '제1차 보현도량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를 봉행하는 송암 스님(사진). "가정에 대한 가치회복이 없이 사회의 안녕과 질

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이번 법회를 기획했다"는 스님은 "스님, 신부와 가정관련 전문학자들이 불교적 관점을 통해 가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법회의 기본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암 스님은 이 법회가 '사회적 문제'를 '불교적으로 푸는' 구도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는 일주문 바깥을 향해 끝없는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소신을 불자 모두와 공유하고 싶다는 것. 부처님의 본인이 대비구세(度世)는 바로 대승적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인권문제도 기본에 충실해야"

인천불교인권위원장 정암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실천한다면 인권향상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인천지역 260만 중 불교인구는 40만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교세가 약하다"고 소개한 정암 스님은 "여러 종단 스님들은 물론 지역시민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4월 20일 지역으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한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암 스님(안심선원 주지·사진)은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고 향

인천경찰청 경정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암 스님은 "사형제 폐지와 양심수 석방 등의 현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교육원장 경정 정사
사감원장 혁명 정사
진각종 총회서 선출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경정 정사(사진 왼쪽)와 진각종 포항교구교정장 혁명 정사가 교육원장과 사감원장에 선출됐다. 진각종(총무원장 호암)은 4월 20일 서울 하월공동 통인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교육원장, 사감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경정 정사는 앞으로 4년간 진각종의 교육분야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강윤신 기자

회계사 회주에 법장 스님 추대



서울 회계사(주지 성광)는 4월 17일 대적광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회계사 신도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법장 스님은 "내가 큰 버팀목이 될테니 열심히 수행하라"고 헌각 스님(회계사 국제선원장) 등 외국인 스님들을 격려했다.

원통불법연구회 염불선 세미나 개최



원통불법연구회(회장 도일)는 4월 16·17일 양일에 걸쳐 곡성 성문사에서 '정통불법의 재현명' 주제 세미나를 열어 청와 스님의 염불선을 조망했다. 세미나에서는 대주 스님(인천 정토선원 주지)의 '염불선 수행에 대한 재조명', 김영동 조선대 교수의 '보리방편론' 등이 발표됐다.

광주 중심사 대웅전 보수준공 법회



광주 무등산 중심사(주지 진화)는 2003년 수해피해를 입은 대웅전을 보수하고 4월 15일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진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해로 붕괴위기에 처했던 대웅전이 광주시민과 불자들의 힘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며 "더욱 정진에 매진하여 불국토를 가꾸자"고 말했다.

중앙대병원 법당 개원



중앙대학교 부속병원 법당이 4월 16일 개원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개원식에는 포교원장 도영 스님, 중앙승가대 교무처장 보각 스님, 공생선원 주지 무각 스님과 환자 및 보호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대병원 지도법사 지현 스님은 "불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법당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국 선수 위덕대 여자축구팀 지원



불자 축구스타 이동국 선수가 위덕대 여자축구팀을 방문했다. 올해 경영학과에 복학하는 이동국 선수(99학번·포항 스틸러스)는 4월 20일 모교에서 '여자축구부와 등 축구용품 등을 지원했다. 이동국 선수는 앞으로 위덕대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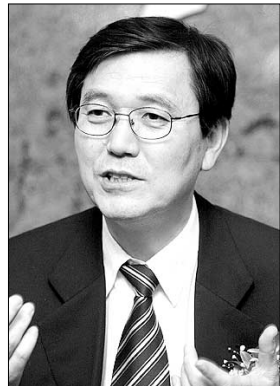
"회원 확대·조직 강화 나설 터"

제5대 한국불교언론인회장 취임 강신철씨

"각 언론사 불자들을 파악, 하나로 규합해 언론인불자들의 역할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4월 18일 언론인불자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언론인회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신철 경향신문 전무(56·사진)의 취임일성이다. 강회장은 가장 먼저 할 일로

조직정비와 회원확보를 꼽았다. 움직일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지난 1월 회장직을 수락한 이후 각 언론사의 인맥을 통해 불교를 믿는 언론인들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

요. 기존 회원들의 변동과 각 언론사내 불자들을 파악하는 일부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 한국불교언론인회가 살 길이 보인다고 확신합니다." 7년여간 경향신문불자회장을 맡았던 강회장은 젊은 불자들이 주축이 돼 경향신문불자



회를 정립했던 전례가 다른 언론사에서조차 나타날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 여기서 얻은 것은 가능성의 발견이었다.

강회장은 이런 뜻을 함께할 신입 임원 및 집행부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은윤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광삼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 이성인 불교방송 사장,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인방송위원 등 창립 이후 각별한 애정을 갖고 활동했던 선배들이 지도위원으로 선임됐다. 유자호 SBS 라디오본부부장과 김대근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장, 이현익 중앙일보 부국장, 이동식 KBS 방송문화연구원장은 부회장을 맡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미륵

- 1 아함경에서 말하는 인수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후천의 개혁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 초상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시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재 7불의 본받을 바였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시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법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해조음 053) 624-5586 / 정토사 053) 622-0333

수신통조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제품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 등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선별배양근이 함유되어 있는 오가피 제품은 성분수치나 수신통조가피와 허위의 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사명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원을 드립니다.

수신통조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